

下請制에 관한 研究

金 文 瑄

I

中小企業을 育成하는 것이 現在 우리나라가 當面하고 있는 하나의 큰 經濟政策課題로 登場하고 있다. 그것은 重化學工業의 國際競爭力 強化에 의한 持續的 輸出增大, 經濟部門間的 均衡成長, 産業聯關效果의 提高를 통한 生産能率 向上을 이룩하기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要素로 登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中小企業을 重要視하지 안했던 것은 아니다. 急速한 經濟成長을 성취하기 위하여 大企業 위주의 成長政策을 취하였기 때문에 中小企業을 積極的으로 支援할 餘力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本格的인 重化學工業 時代로 접어들고 있으며 따라서 重化學工業의 國際競爭力 強化에 의한 持續的인 經濟成長 및 經濟의 二重構造를 解消하기 위해서는 中小企業育成問題가 必要不可欠한 要素로 登場하고 있는 것이다.

元來 中小企業 問題는 獨占資本主義段階에 접어들면서 本格的으로 問題되기 始作하였다. 中小企業은 經濟的인 非合理性 때문에 大企業이 進出하기 곤란한 分野 및 大企業이 獨占利潤을 獲得하기 위한 手段으로 存在할 뿐이며 그외의 中小企業들은 淘汰되거나 驅逐될 것이라는 理論과, 中小企業은 그 나름대로의 特性이 있기 때문에 大企業과 相互 補完關係를 이루면서 存續·發展할 것이라는 理論이 對立되어 있지만 어느 경우이건 간에 中小企業이 大企業과의 關係에서 不利한 立場에 있다는 것만은 一致하고 있는 것 같다. 이와같은 中小企業問題를 어떠한 方向으로 解決하느냐 하는 것은 그 國民經濟의 發展過程에 따라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나라는 對外 指向的인 經濟成長政策을 追求하고 있으며, 이 成長政策의 앞으로의 成敗與否는 重化學工業의 國際競爭力 如何에 달려 있다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며, 重化學工業의 國際競爭力 強化問題는 大企業과 中小企業을 對等한 分業關係로 中小企業을 育成 發展시킬 수 있느냐의 如否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問題를 다룰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에는 充分한 資料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本論文

에서는 우리보다 조금 앞서가고 있는 日本의 不請制를 中心으로 다룸으로써 우리나라 下請制를 올바르게 展開해 나가는 데에 참고가 되도록 한다.

II

中小企業 問題가 本格的으로 問題되기 始作한 獨占資本主義段階에서는 一部の 大企業까지도 金融資本의 隸屬下에 놓이는 現象이 發生하게 되며, 이러한 獨占資本은 단지 獨占利潤을 얻는데 그칠 뿐 아니라 從來와는 質적으로 다른 過度한 競爭을 激化시킴에 의하여 中小企業에 대하여 一定한 支配關係를 形成하게 된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中小企業의 存立形態는 그 存立條件 및 存立分野와 關聯하여 다음과 같은 諸要因에 의하여 規制되어진다 할 것이다. 말하자면 그 國家의 資本主義發達狀態 特히 獨占資本主義 再生産構造의 構成 및 機能과 여기에서 中小企業을 支配하는 上位資本의 機能과 中小企業의 經營形態 그 自体에 의하여 決定되게 된다. 이것은 中小企業이 獨占資本主義段階에서 獨占資本과 어떠한 關係에 놓이게 되느냐 하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事情下의 獨占資本主義段階에서의 中小企業은 金融·財政, 稅制 및 獨占價格, 市場關係等에 의하여 獨占資本의 一般·間接的인 支配를 받기도 하며, 下請制等에 의하여 直接的으로 支配되기도 한다. 따라서 前者의 경우를 相對的獨立型中小企業, 後者の 그것을 從屬型中小企業이라 하여 區別하며, 獨占資本主義段階에서 特히 問題가 되는 것은 從屬型中小企業에 관한 것이다.

이 從屬型中小企業은 앞서의 存立形態를 規制하는 諸要因에 따라서 下請制(客主制下請, 工場制下請) 및 企業系列 等으로 分類된다.

下請制는 이를 廣義로 解析하면, 中小企業이 上位資本 말하자면 商業資本(大商社, 客主), 産業資本 및 國家資本(官廳)等으로부터 注文을 받아서 素材加工이나 部品製造等を 행하는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中小企業에 대한 上位資本의 外業部的인 支配形態인 것이다. 이러한 경우 上位資本의 性格·機能과 支配되는 中小企業의 生産形態에 의하여 여러 가지 形態의 支配關係가 發生한다. 예를 들면 産業資本化한 商業資本이 賃勞動者를 가지는 「매뉴팩처」를 支配하는 形態로서의 客主制「매뉴팩처」, 商業資本이 工場을 支配하는 形態로서의 客主制下請, 産業資本이 中小企業을 支配하는 形態로서의 工場制下請等이다. 이 경우 客主制下請은 主로 流通過程을 통한 支配關係에 重点이 두어지며, 工場制下請은 生産過程에 重点이 두어진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간에 獨占資本을 頂點으로 해서 上位의 産業資本 혹은 商業資本이 劣位의 中小企業을 支配하는 形態라고 하는 점에서는 共通的인 것 같다. 이와같은 支配關係를 이를

중소기업이 不利한 程度는 各중소기업의 下請制로서의 存立形態가 獨占資本을 頂点으로 한 「피라미드」型的 資本階層中 어느 階層에 位置하고 있는가에 의하여 또한 그 階層에서의 市場構造에 의한 競爭關係 및 競爭條件에 의하여 決定된다.¹⁾ 따라서 獨占資本을 頂点으로 해서 아래 階層에 있는 企業일수록 不利한 程度가 큰 것이 一般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獨占資本의 集中·支配의 運動法則이 強化됨에 따라 下請중소기업은 內部에서의 階層分化가 이루어져 專屬의 下請중소기업과 浮動的 下請중소기업으로의 分化가 이루어진다. 이 專屬의 下請중소기업과 相對的獨立型중소기업으로부터, 通常의 企業活動에 있어서 去來關係 以上の 깊은 連繫關係를 갖는 企業系列이라는 從屬型중소기업의 存立形態가 發生하게 된다. 企業系列에 關하여 藤田敬三氏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²⁾ 企業系列은 元來 下請制로부터 또는 下請制의 發展으로서 發生한 것으로서 下請制와의 共通性은 勿論 客主制家內工業의 系譜 下에 있는 企業結合形態이며 그것의 最高의 發展形態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流通面에서의 結合形態를 통해서 劣位企業을 支配하려고 하는 優位企業 特히 獨占體의 意圖에 따라 이루어진 機構라는 점에 그 本質의 特徵이 있다.

따라서 企業系列은 ① 客主制家內工業 以來的 外部에서의 支配이며 이것을 擴大하려고 하는 것이다. ② 流通面에 있어서의 結合은 下請과 같이 部分的·一般的인 것이 아니라 客主制家內工業인 境遇의 專屬의·恒久的인 性格을 더욱 強化시킨다. ③ 生産面에 있어서의 結合도 下請과는 比較되지 않을 만큼 質的으로 強化되어 內部經營이나 技術設備面까지도 配慮되어진다. 따라서 母工場의 立場에서 본다면 下請工業은 利益을 얻을 수 있는 機會의 量的인 擴大이나 原則的으로 生産面에서의 不可缺의 要素는 아닌데 反하여, 系列의 경우에는 母工場의 生産經營의 一要素로서 편입되어져 있어 簡單히 떨어질 수 없다. ④ 이리하여 企業系列은 客主制家內工業에서 下請制로의 系譜를 따라 段階的으로 새로운 資本의 要求에 應하려고 하는 것이다. ⑤ 企業系列은 浮動的인 關係로 끝나는 下請과는 달리 母企業의 經營中에 깊이 편입되어 母企業이 系列企業의 經營內容에도 關係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그러나 子會社와 같이 完全히 密着해서 安定된 結合體도 아니며 「트라스트」, 「콘체른」과 같이 資本支配가 完全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獨占法의 制約下에서는 말하자면 「콘체른」支配의 代用物的結合體이다.

以上에서 下請制와 企業系列을 살펴 보았다. 이들을 比較해 보면 企業系列은 下請制와 같이 母企業과의 關係가 一時的 浮動的이어서 不安定한 것이 아니고 母企業의 經營管理體制의 一環에 편입되어 技術開發力, 經營者能力의 向上, 資金의 融通, 繼續的인 發注에 의한 經營의 相

1) 加藤誠一
水野武 編集：經濟構造と中小企業，同友館，1976，p. 94.
小林增雄

2) 稻葉裏：中小工業企業形態論，森山書店，1975，p. 35'

4 는 문 집

對的인 安定性을 갖고 있으며 그 關係는 系統的이며 恒常的인 것이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獨占資本의 直接的인 支配形態下에 있는 從屬型中小企業의 存立形態를 獨占資本을 頂点으로 해서 보면 企業系列, 下請制, 下請制에서는 專屬的 下請에서 浮動的下請이라는 階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下請制는 客主制家內工業에서 그 原型을 찾을 수 있다. 客主制家內工業과 下請制는 形態上으로 다르기는 하다. 即 前者는 支配하는 資本이 高商業資本일 뿐 아니라 支配를 받는 것은 手工的인 直接生産者인데 反하여 後者는 支配하는 資本이 商業資本인 경우도 있지만 典型的인 것은 獨占資本主義段階에서의 産業資本임과 同時에 支配되는 것은 賃勞動者를 使用하는 中小企業이다. 그러나 資本이 支配한다는 面에서 理解할 때 下請制의 原型을 前期的商業資本이 家內工業을 支配하는 客主制家內工業에서 찾는다는 것이 無理가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下請制는 工業生産形態의 各發展段階에 對應해서 客主制「매뉴팩처」에서 客主制下請, 工場制下場으로 發展하여 왔다. 特히 獨占資本主義段階에서는 獨占利潤을 獲得하기 위한 機構로서 利用되어 졌다.³⁾

下請制가 광범위하게 展開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理由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즉 母企業은 下請制에 의하여 固定, 流通資本의 節約, 景氣變動의 危險分散, 賃金格差를 利用함에 의한 費用節約, 景氣變動에 대한 防衛的인 效果 및 組織勞動者의 壓力을 回避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은 賃金格差가 下請制의 利用을 보다 광범위하게 그리고 效果의으로 可能케 한 理由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英國에서는 獨占資本과 中小企業의 關係가 不等價交換의 立場이라기보다는 對等한 社會分業的인 關係를 形成하고 있는데 이것은 最底賃金制等의 社會諸立法에서 그 原因을 說明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⁴⁾ 오늘날의 中小企業問題가 獨占資本과 中小企業間의 不等價交換을 解消하고 對等한 社會的인 分業關係를 實現함으로써 國民經濟를 發展시키는데 있다고 할 것 같으면 最底賃金制度를 確立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重要한 課題라 할 것이다.

그러면 以上과 같은 諸理由에 의하여 展開되어온 下請制는 獨占資本主義經濟構造의 變化·發展과 더불어 獨占資本의 獨占利潤獲得機構로 어떻게 編成되어져 왔는가를 中小企業의 存立分野와의 關係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資本의 集中度가 높은 獨占的인 大企業이 支配하는 重化學工業을 별도로 한다면, 大企業과 中小企業이 併存하고 있는 二極集中的인 分野에서는 中小企業의 資本·設備·技術·勞動·市場等이 大企業과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 中小企業은 勞動集約기면서 相對的으로 勞務費構成

3) 加藤誠一
水野武 編集: 經濟構造と中小企業, 同友館, 1976. p. 97.
小林靖雄

4) 上掲書, pp. 266-269.

이 낮은 部門과 二流商社·產地客主를 통해서 相對的으로 협소한 地方市場을 對象으로 하는 部門에서 存立하게 되며, 이러한 部門에서는 競爭이 치열한 것이 一般的이다. 이러한 分野에서는 工場制下請과 同時에 客主制下請도 殘存하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그런데 中小企業이 支配的인 分野에서는 두 가지의 커다란 特徵이 있다. 그 하나는 相對的으로 局地的이며 短期的인 需要를 갖는 多品種少量의 變動性이 많은 不安定한 市場을 相對로, 相對的으로 봐서 適應性이 많고 資本回轉이 빠른 勞動集約的인 分野에서 家族勞動, 家內勞動等 相對的으로 資金에 의존하는 小零細企業이 主된 分野이다. 例를 들면 地方産業이나 客都市의 小零細産業 및 消費財産業等에 많으며 이들 중에는 工場制下請제도 있으나 아직도 客主制下請이 광범위하게 殘存하고 있어 浮動的下請工業이 많다.

또 하나는 技術革新에 따른 研究·技術開發機能이나 혹은 情報機能을 充實하게 해서 專門性을 높임으로써 高品位·超精密의 高加工度製品을 生産해서 特殊한 社會的 需要에 應하는 많은 分野가 中小企業의 새로운 分野이다. 이러한 分野에서는 相對的獨立型中小企業도 있지만 工場制下請 特히 專屬的下請中小企業이나 企業系列이 많으며 이러한 中小企業은 兩下請을 많이 利用한다.

以上에서와 같은 各 存立分野의 特徵을 갖는 各産業部門·業種이, 産業構造가 高度化되는 過程에서부터 低賃金·長時間勞動의 小零細企業이 支配的인 業種에 이르기까지 各業種別로 格差가 形成되며 이러한 格差가 中小企業의 存立形態에도 反映되어 下請制의 變化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業種格差에 의하여 從屬型中小企業은 獨占·大資本을 頂点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피라미트」型的 企業集團中에 編成되게 된다. 卽 持株關係, 幹部社員派遣, 融資關係等에 의하여 密接히 結付되고 있는 子會社, 子會社만큼은 못하다 하더라도 人的·資本的關係에 의하여 支配(傍系的支配)下에 있는 系列企業, 生産·技術, 機械設備, 資材, 流通·販賣, 人的·資本·資金關係 等에 의해서 全面的 혹은 둘 以上の 面에서 恒久的으로 結付되어 있어 經營面에서 相互 깊은 關係에 놓여 있는 系列企業, 專屬的下請企業 등이 「그루우프」化 되어져, 系列企業集團의 底邊에는 膨大한 非系列·下請企業群이 있으며 이들은 獨占·大資本을 頂点으로 階層的企業構造를 形成하고 있다. 말하자면 獨占·大資本을 頂点으로 해서 ① 子會社, ② 系列企業, ③ 專屬的下請中小企業(系列企業), ④ 浮動的下請中小企業, ⑤ 浮動的 再·再下請 小零細企業(客主制下請小零細企業)이라는 階層的企業構造이다.

이들 各 階層的 諸企業은 獨占資本의 合理化政策에 의한 資本蓄積의 進展에 따라 一方에서는 子會社, 系列企業·專屬的下請企業으로서의 經營의 近代化를 促進해서 獨占資本에 從屬된 一構成部分으로서 存立하게 되며, 他地方에서는 非系列企業·浮動的下請企業, 客主制下請企業으로 되며 이들은 過度競爭과 높은 開廢率을 나타내어 全體的으로 停滯·沒落의 傾向을

건게 되는데 이들이 深刻한 小零細企業問題를 提起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階層的企業構造內的 階層分化를 軸으로 해서 殘餘의 相對的獨立型도 各種의 市場構造(競爭條件)를 통하여 間接적으로 支配하며 끊임없이 企業格差를 擴大시킨다. 一般的으로 이와같은 企業格差는 賃金格差를 基礎로 해서 生産性格差, 資本格差, 實質金利格差, 技術格差, 原價格差 등이 規模別格差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獨占·大資本을 頂点으로 하여 獨占·大資本에 의해서 利用되어 지고 있는 下請制도 中小企業의 成長·發展에 對應해서 變化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下請制의 本質的特徵은 獨占資本이 直接 雇傭하는 程度의 勞動力을 中小企業의 支配를 통하여 利用함으로써 直接 雇傭하는데 따른 負擔과 責任을 回避하며 中小企業과 不對等한 分業關係를 이루면서 獨占利潤을 얻는 關係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元來 下請制에서의 元方資本과 下請中小企業과의 關係는 그 歷史的原型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같이 一時的 流動的이어서 不安定할 뿐 아니라, 下請中小企業의 技術이나 勞動生産성이 높은데에 關聯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혀 下請中小企業資本의 劣勢와 相對的 低賃金等에 의한 關係를 特徵으로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技術革新을 契機로 한 產業構造의 高度化, 그 위에 勞動力不足에 의한 人件費의 上昇等 諸要因에 의하여 存立條件의 變化 및 再生產構造의 變化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事態에 對處하기 위하여 獨占資本은 下請制의 本質을 貫徹하면서 生産力의 發展에 對應한 再生產機能의 效率化를 기하기 위하여 優秀한 中小企業을 選別, 專屬化에서 經營의 近代化를 도모하고 專門性을 強化하여 技術水準의 上昇이나 勞動生産성의 向上을 促進하면서 賃金格價等을 利用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下請中小企業에 있어서도 從來의 勞動集約型에서 省力化·合理化에 의한 資本集約型으로 移行하여 主要한 受注製品의 安定的인 長期繼續發注를 母企業에 求하게 되었다. 同時에 量產에 의한 「코스트」引下를 追求함에 의하여 市場의 閉鎖性에서 市場의 開放性을 指向하여 元方複數化에 의한 技術上的 相互補完的인 立場에서 特定元方企業과 資本關係를 갖게 되는 것과 같은 企業系列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下請關係에서 벗어나 對等한 分業關係로 發展한 中小企業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을 中堅企業, Venture Business로 불리워지고 있다. 따라서 中小企業이 大企業의 豫속에서 벗어나는 契機를 이들 企業에서 찾고 있으나 아직은 미숙한 段階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II

지금까지 우리는 存立形態面에서 下請制를 살펴 보았다. 그러한 過程에서 下請制의 本質이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下請制를 研究함에 있어 그 本質을 좀 더 理解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本質에 관하여 대조적인 두 가지 見解를 살펴 보기로 한다.⁵⁾

1. 小宮山塚三氏の 見解

小宮山氏は 日本 中小企業의 存立形態를 産業資本確立의 觀點에서 다음과 같이 分類하고 있다.

(A) 中小工業의 獨立形態

(B) 中小工業의 從屬形態

(1) 支配者が 問屋⁶⁾ 혹은 商業資本, 輸出貿易資本, 百貨店資本 등에 의한 경우(問屋制工業)

(a) 下請業者의 生産이 資本家の 生産에는 이르지 못한 것(舊問屋制工業 혹은 家內工業).

(b) 下請業者의 生産이 資本家の 生産內容을 갖추고 있는 것(新問屋制工業)

(2) 支配者が 大工業資本인 경우(下請工業)

以上の 分類에서 小宮山氏は (B)의 (1)과 (2)를 다 같이 下請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支配資本의 相違에 따라 그 社會經濟의 內容이 全然 別個라는 觀點에 따라 (2)를 特히 下請制工業 혹은 下請工業이라 부르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下請工業의 屬性을 다음과 같은 것이라 하고 있다.

(1) 支配者인 大工業은 生産의 內部的 主導者이며 下請은 生産工程 바로 그 가운데 關係를 가진다.

(2) 支配의 根據가 生産外의 前期的인 收取가 아니라 巨大資本에 의한 小資本의 壓倒.

(3) 母工場과 下請工場이 生産工程上的 關係를 가져 多少間에 有機的으로 結合되고 있는 것.

(4) 따라서 그 生産分化가 社會的分業 혹은 一生産部門內의 特殊分業의 實現인 限 生産物의 價値대로 交換되는 것.

이와같이 小宮山氏は 支配主体가 産業資本인 경우를 下請制工業이라고 하여, 商業資本이 支配主体인 경우의 客主制工業으로서의 下請制工業과는 별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 하고 있

5) 北沢康男: 中小企業成長理論の研究, 世界思想社, 1977, pp. 51-69.

稻 葉 真: 中小工業經營形態論, 森山書店, 1975, pp. 25-32

6) “問屋”는 우리나라 “客主”에 해당되는 用語임.

다. 뿐 만 아니라 兩形態가 支配的인 生産部門도 다르다고 보고 있다. 即 客主制工業은 主로 消費手段·輸出製品部門에, 下請制工業은 生産手段·軍需製品 生産部門에 普及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區分하면서도 産業資本을 主体로 하는 모든 支配가 下請制工業은 아니며 産業資本이면서도 商業資本의으로 機能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認定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면서도 이를 區別하는 것은 社會的分業으로서의 大工業과 中小工業의 關係成立의 契機를 찾으려고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는 浮動의 下請은 그 支配의 性質이 産業資本의이라기 보다는 商業資本의이라 하고 있다. 따라서 社會分業的인 相互關係가 成立하려면 浮動의 下請에서 專屬의 下請으로 移行되어져야만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專屬化를 근간으로 해서 大工業의 基本的인 生産과 有機的으로 結合되어 지며 이러한 關係가 發展되면 下請制에서 벗어나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의 對等한 關係, 即 社會的分業關係가 發生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그는 下請制를 中小工業의 從屬形態로서 파악하면서도 그것을 動的인 것으로 理解하고 있기 때문에 下請制는 그 自体에 從屬性脫脚의 契機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小宮山氏의 理論은 下請制를 動態的으로 理解하여 그 自体에서 脫脚의 契機를 마련하여 社會分業的인 關係로 移行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훌륭하나 어찌해서 大工業에 의한 中小企業의 支配가 兩者에 있어서 一定의 生産行程上의 關係를 必要로 하는가 하는 점이 명료치 않은 것은 결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支配資本과 從屬資本의 生産技術的인 關聯性은 下請制의 本質을 理解하는데 重要한 意味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 藤田敬三氏의 見解

下請制工業에 관한 藤田氏의 理論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 (1) 下請制工業은 優位資本이 劣位産業(工業)資本에 대한 商業資本의 支配다.
- (2) 이 경우 支配主体가 商業資本인가 産業資本인가는 問題되지 않는다.
- (3) 그 歷史的인 端初形態는 問屋制「매뉴팩처」이다.

여기에서 가장 核心이 되는 것은 優位資本에 의한 劣位資本支配가 商業的支配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商業的支配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를 藤田氏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下請制에 있어서 元方은 自己資本의 一部를 勞動者의 雇傭이나 設備, 機械等に 充當하지 않고, 換言하면 下請工場의 製品을 加工하거나 部品을 購入해서 이것을 그대로 혹은 自家製品의 一部分으로서 轉賣한다는 意味에서 産業資本의이 아니라 商業資本的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단지 流通面에서 機能하는 資本과 같은 役割을 함으로써 産業資本的 危險과 責任을 回避해서 産業資本의 他의 部分과 마찬가지로 혹은 그 以上의 利潤을 얻는 것을 말한다.

元來 資本은 勞動을 支配하는 데에 보다 發達하였다. 卽 勞動者를 自己의 經營에 集結해서 支配하는 이른바 産業資本의 支配와 同時에 經營外部에 광범위하게 分散되고 있는 勞動의 支配를 並行한다. 産業資本의 支配가 直接的으로 勞動의 購入形態를 취하기 때문에 이것을 直接的인 支配라고 한다면 後者를 間接的인 支配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一次的으로 勞動을 支配하는 것은 中間에 介在하고 있는 中小의 經營主이며 資本의 勞動支配는 이러한 中間業者로부터의 部品の 購入 내지 이들에게 加工賃을 支拂하는 形態를 通하여 이루어 진다. 말하자면 支配的인 資本은 直接 自己經營의 주위에 外業部를 가지고 自家工場의 外部에 繫留시킴으로써 이의 支配를 通하여 間接的으로 勞動을 支配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外業部の 獨立性은 完全히 虛構的이며 勞動과 이의 實質的 支配를 仲介하는 役割을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 地位는 勞動者의 그것보다도 더욱 나쁜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支配方法을 商業資本의 支配라고 氏는 말하고 있다.

以上에서와 같이 藤田氏는 下請制의 本質을 優位資本에 의한 劣位資本의 商業的 支配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 안될 것은 下請制의 本質을 規定함에 있어 資本對 資本의 對立關係라는 觀點보다는 資本對 勞動의 對立이라는 觀點에 서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下請中小企業者의 資本家性을 低價評하는데 反하여 勞動者의 性格을 強調하고 있는 것이다. 勿論 下請制가 間接的인 勞動支配인 以上 介在者로서의 從屬資本의 存在를 無視할 수는 없지만 介在者인 從屬的인 資本家性이 強하면 支配資本과 從屬資本間 對立이 前面에 나타나게 되어 支配資本에 의한 從屬資本支配下의 勞動의 間接的支配라는 本來的 主張이 뒤로 물러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와같은 下請制工業이 생기는 理由는 무엇일까? 藤田氏는 이를 資本의 節約이라고 하는데서 그 契機를 찾고 있다. 勿論 下請制를 利用하는 要因으로 景氣變動에 대한 防衛的인 役割, 勞動者의 分斷政策等을 들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副次的인 要因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以上에서 藤田氏의 理論을 살펴 보았는데 이에 대한 問題點을 살펴 보기로 한다.

商業資本의 支配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下請制에 있어서의 支配의 本質을 말하는 것이지 優位資本이 劣位中小資本 支配라는 資本支配 一般의 性格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獨占資本主義段階에 있어서 大資本이 中小企業支配는 下請制를 通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巨大資本은 언제나 될 수 있는 한 資本을 節約하고 危險을 回避하면서 間接的으로 勞動을 支配하여 利潤을 追求하려는 이른바 下請支配의 契機를 內藏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內的인 契機가 언제나 實現되는 것은 아니며 이것이 實現되기 위해서는 一定的의 條件이 釀成되어야 하는데 그 構造的條件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提示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의 問題點은, 商業資本에 依한 商業資本의 支配나 産業資本에 依한 商業資本의 支配나 그것이 商業資本의 이라고 하는 性格에 있어서는 同質의이다. 그러나 그것은 優位資本이 劣位資本을 外部에서의 流通을 通하여 支配하는 場合에 있어서 그러하다. 이 경우 外部的인 流通을 通한 支配가 어떠한 內容을 갖느냐가, 具體的인 規定에로 論議를 展開시키려고 할 때는 問題가 되겠는데 이를 度外視하고 있는 것이 問題라 할 수 있다.

以上에서 下請制의 本質에 關한 對立되는 두개의 理論을 살펴보았다. 하나는 下請工業을 社會分業的인 觀點에서 보려는데 反하여 다른 하나는 從屬的인 立場, 말하자면 大資本에 의한 收奪關係로 보려는 立場이 있다. 大資本의 生理로 보아 後者の 理論을 支持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 그러나 中小企業의 現存狀態를 살필 때 後者の 立場이 옳다고만 할 수는 없다. 말하자면 分業關係냐 從屬關係냐 하는 것은 그 社會의 産業發達程度 및 中小企業政策 如何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即 組立工業이 高度化와 이를 뒷받침하는 中小企業育成策은 中小企業으로 하여금 獨自的인 技術을 갖게 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母企業과 中小企業間에는 社會的인 分業關係를 形成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나 日本같은 나라에서는 從屬的인 性格을 強하게 가지고 있으나 歐美에서는 分業關係的 性格을 가지고 있는 것이⁷⁾ 이를 反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V

中小企業의 存立形態를 現實問題로 다룰 때 그것이 分業的인 性格을 보다 많이 가지고 있느냐 혹은 從屬的인 性格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一律的으로 말할 수 없다. 말하자면 그 國家의 經濟發達程度, 中小企業政策 및 社會諸立法等에 따라서 現實的인 存立形態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中小企業의 存立形態로서의 下請問題를 具體的으로 다룰 때 그 國家의 諸與件을 考慮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下請問題의 具體的인 展開는 우리나라 特有的 諸與件을 前提로해서 展開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下請制의 現實에 관한 資料가 不備하기 때문에 이를 다루기는 곤란하다. 그러므로 筆者는 過去 日本이 걸어온 길이 우리와 나아가는 것과 비슷하다는 前提下에 IV에서는 歐美下請制와 比較한 日本下請制의 性格을 考察하고, V에서는 日本下請制의 變化 및 方向에 대하여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 下請制의 올바른 展開方向에 대하여 참고가 되도록 해볼까 한다.

下請制는 獨占資本主義段階의 基本的인 經濟法則에 의한 一般的이며 共通的인 現象이기는 하지만, 앞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 國家의 經濟構造의 歷史的發達段階의 差異와 그 特殊

7) 清成忠男: 變動期の中小工業經營, 日本勞動協會, 1976, pp.71-72.

성에 따라 下請制는 國家別로 特徵이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特徵을 크게 나누면 比較的社會分業關係로 理解되고 있는 歐美類型과 從屬形態로 理解되고 있는 日本類型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歐美類型을 살펴 봄으로써 日本類型的 特徵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로 하자.

Joseph Steindl은 中小企業의 殘存理由 가운데서 下請制를 다루고 있다.⁸⁾ 그는 殘存理由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① 大企業이 資本蓄積에 의하여 大規模經濟를 實現하는 過程이 완만하기 때문에 中小企業의 排除가 漸進的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② 不完全競爭이 中小企業의 市場을 保護하기 때문이라는 것. ③ 寡占이 一定數의 中小企業의 殘存을 許容하게 된다는 것. ④ 中小企業家の 賭博的 態度. ⑤ 下請業者의 殘存이 전혀 大企業의 實定에 의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大企業이 從의 統合을 하는 경우보다 統合을 하지 않고 下請業者를 利用하는 것이 보다 높은 利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以上の 殘存理由를 說明하는 가운데 中小企業의 높은 死滅率과 脆弱性 및 低賃金勞動의 存在에 關해서 言及하고 있기는 하지만 왜 이러한 事態가 發生하는 가는 說明하지 않고 있다.

Robert T. Averitt는 中核企業과 周邊企業이라는 전혀 다른 企業組織으로 이루어지는 經濟를 二重經濟라고 하여, 이 周邊企業과 中核企業이 어떠한 關係를 갖는가에 依해서 satellites, the loyal opposittdn, free agents의 3가지로 分類하고 있다.⁹⁾ 이 경우 衛星企業이 中核企業과 下請關係에 있게 된다고 한다. 衛星企業은 그 規模가 작으며, 原材料衛星企業과 配給關係衛星企業으로 나누어 지고 있다. 예를 들면 自動車產業에서 自動車製造會社에 販賣하는 車內裝飾企業은 原材料關係衛星企業이며, 自動車販賣店은 配給關係衛星企業인 것이다. 中核企業은 主契約者로서 內製·外製의 選擇을 自由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利潤을 올릴 수 있는 경우에 下請을 利用하게 된다. 또한 Averitt는 中核企業이 衛星企業을 直接 所有하는 것과 比較해서 다음과 같은 長點이 있다고 한다. ① 事業危險의 一部移轉, ② 運營의 柔軟性, 不景氣時的 過剩生産能力을 적은 費用을 들이고 維持할 수 있다는 것, ④ 資本을 節約하여 보다 많은 利益을 올릴 수 있는데 投資할 수 있다는 것, ⑤ 「反「트라스트」法」下에서의 便宜, ⑥ 周邊企業所有者나 從業員에 대한 特別給與問題를 回避할 수 있다는 것, ⑦ 大企業을 支持하고 있다고 표방함으로써 좋은 公衆關係를 維持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많은 製造業의 衛星企業은 浮動衛星企業인데, 專屬衛星企業은 契約, 傳統, 人的關係나 기타의 手段에 의해서 하나나 몇개의 中核企業과 밀접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 衛星企業은 中核企業의 市場으로부터 分離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資金援助, 信用保證等에 依하여 支配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中核企業은 主要한 意思決定力을 가지고 있어 衛星企業을 支配하고 있

8) 加藤誠一
水野武 編集: 經濟構造と中小企業, 同友館, 1976, p.106.
小林清雄

9) 上掲書, p.107.

다. 中核企業이 衛星企業을 所有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中核企業과 衛星企業이 金融面에서 關係를 가지는 것이 가장 一般的인 형태이다.

以上에서 下請에 관한 Steindl과 Averitt의 理論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다-같이 母企業이 相對的으로 높은 利潤率을 얻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는 데는 共通的이다. 그러나 Steindl은 低賃金勞動을 指摘하고 있으나 Averitt는 景氣變動에 의한 危險의 分散, 資本節約 등이 利点으로 되고 있어 金融面에서의 支配가 強調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건 下請制가 社會分業에 立脚해서 去來契約을 原則으로 하는 二次的契約者·受注者라고 하는데 그 特徵이 있다고 하겠다. 말하자면 下請制의 利用을 分業關係에서 오는 利益의 觀點에서 보고 있는 것이지 收奪한다는 觀點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에는 西獨의 下請實態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¹⁰⁾

Düsseldorf地區의 金屬加工手工業의 下請을 보면 下請依存率은 낮다. 大体로 19% 以下가 全体の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29%가 約 70%이고 依存率이 50%以上인 下請手工業은 8%에 지나지 않고 있다. 發注母企業數가 10-30企業이 된다는 下請手工業이 51%를 차지하고 있어 下請依存率이 낮은 것과 對應되고 있다. 이와같이 西獨에서는 下請企業이 發注企業에 대한 依存率이 一般的으로 낮으며 특히 一特定企業에 專屬되어 있는 下請企業은 大端히 적다. 最近의 自動車業界의 下請企業에 대하여 母企業에 대한 依存性을 「양케에트」에 의한 調查結果 37企業中 1企業만이 專屬的이었다. 따라서 多樣化가 急速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下請企業은 每年 增大하는 傾向이 있으나 再下請과 같이 從的인 從屬性은 日本 下請制에 比해서 相對的으로 弱하다. 이것은 西獨의 賃金格差等과 關係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千名 以上企業의 總時間賃金を 100이라 할 때 100명 未滿企業은 大体로 90%前後이나 日本의 勞動費用의 規模別 格差는 5千명 以上을 100으로 할 때 100명 未滿企業은 60%程度에 不過하다.

이와같이 西獨의 下請制에서는 一般的으로 下請依存率이 낮으며 賃金格差 또한 相對的으로 적다. 특히 上層下請中小企業은 專門化되어 있어 社會的分業關係를 이루고 있는 것이 큰 特徵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階層的으로 보면 底邊部の 零細下請手工業에 있어서는 市場이 狹소하고, 그 地位가 弱하기 때문에 相對的으로 輕한 女子勞動力이나 家族勞動을 利用하는 점이 下請制의 特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歐美的 下請制와 比較해서 日本 下請制의 特徵은 國家와 癒着한 獨占資本은 二重構造(融資集中機構, 賃金格差等)를 形成하고 있으며, 이것이 中小零細企業에 대한 支配·從屬關係를 보다 強制化해서 損失을 떠맡기는 것이나 收奪을 一層 苛酷하게 하는데 있다는 점이

加藤誠一
10) 水野武 編集：經濟構造と中小企業，同館友，1976，pp. 108-110
小林靖雄

다.¹¹⁾ 이러한 것은 日本의 中小零細企業間의 경쟁이 극심하고, 中小零細企業의 分野가 넓은 데다 그 開·廢業率이 높다는 것과, 歐美의 下請制가 景氣變動의 調節이나 危險分散에 重點을 두고 있는데 反하여 日本에 있어서는 相對적으로 낮은 貨金利用(下請單價引下)에 力點을 두고 있다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下請制가 社會的分業에로의 正常的인 發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理由는 어디 있을까. 그것은 獨占資本의 再生産構造下에서 溫存하여 利用되어진 前期의 下請制에 의한 阻害, 戰後에 있어서도 各種의 收奪이나 中小企業分野에의 침투, 中小零細企業의 未組織等과 더불어, 高度成長過程에서 한편에서는 相對的獨立型中小企業이 發展을 하기도 했지만 다른편에서는 下請制의 變貌·企業系列化로 展開된데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된 根本的인 理由는 最低貨金制의 未確立等 貨金格差의 擴大要因이 存在하고 있다는 事實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V

以上에서 西歐와 比較한 日本下請制의 特慌과 問題點들을 알아 보았는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下請制가 어떻게 變遷하여 왔으며 그에 對應하는 下請政策은 어떠한 것이었던가를 살펴보기로 한다.¹²⁾

日本의 下請制는 昭和初期의 恐慌以前에도 纖維工業에서 行하여 지기는 했지만 이것이 機械工業에 까지도 一般化된 것은 滿洲事變에서 日華事變에 걸친 軍備擴張에 따른 軍需工業 特히 重工業 展開에 따라 이루어졌다. 1941년 以後부터 下請制는 協力工業이라고 불리워졌으며, 從來의 下請制에서 專屬化를 통한 有機的인 生産上의 連繫關係에 基礎해서 高度의 技術水準을 目標로 對等한 戰時社會分業形態를 指向하는 協力工場管理로 發展했다. 따라서 協力工業協議會는 이러한 下請制에서 企業系列로 發展하는데 基礎的인 役割을 하였다. 그후 企業系列化 企業集團內에 포섭되어 系列管理는 工作機械工業부터 實施되게 되었다. 이러한 企業系列은 從來의 下請이나 協力工場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特徵을 가지고 있다. ① 發注工場이 指定協力工場에 대한 育成이, 生産上의 有機的連繫의 一環으로서 義務를 지도록 한 것, ② 發注工場(母企業)을 頂點으로 專屬協力工場, 共同協力工場, 一般集團工場이라는 系列化에 의한 從의 「피라밋」型的 分業生産體制가 構成되어 企業集團을 構成하였다는 것(母企業에 대한 依存度 80%以上이 專屬協力工場, 30~80%가 共同協力工場), ③ 이와같은 企業系列에 의한 企業

11) 加藤誠一
水野武 編集：經濟構造と中小企業，同友館，1976，p.110.
小林清雄

12) 加藤誠一
水野武 編集：經濟構造と中小企業，同友，1976，pp.111-124.
小林清雄
稻葉裏：中小工業形態論，森山書店，1975，pp.57-62.

集團의 結成에 依하여 協力工場은 一定의 生産·技術과 一定量의 受注量 確保를 基準으로 選別되어졌다는 것, ④ 이렇게해서 企業集團의 一員이 된 系列企業은 從來의 下請關係에서 發展해서 母企業과의 間에 經營上 깊은 有機的인 連繫關係를 맺게 되고 그 機能을 充分히 發揮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敗戰에 의하여 財閥이 解体됨으로 말미암아 下請制나 企業系列은 事實上 없어진거나 다름없이 되었다가 日本獨占資本이 점차 일어나기 始作한 1948年從부터 下請制가 復活되기 始作하였다. 戰後의 下請關係는 從來의 前期的인 家父長的인 從屬關係에서, 打算的인 景氣調節의 利用을 包含하는 關係를 經由해서 科學的經濟合理主義的인 利用關係로 展開되어, 企業系列化는 生産·流通·金融의 各分野 全般에 波及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過程에서, 한편에서는 戰前에 볼 수 없었던 下請代金の 支拂遲延과 이의 어음化의 諸惡條件이 問題되어 1956年 7月에는 下請代金支拂遲延防止法이 公布되어 日本에서 처음으로 下請政策이 具體적으로 展開되기 始作하였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下請企業選別이 進行되던 1955年境부터 企業系列化가 急速히 發展되기 始作하였다. 即 獨占資本은, 中小企業의 設備投資增加에 依한 近代化 의욕과, 經營上의 不安定에 着眼해서 比較的 優秀한 中小企業의 系列化를 促進해서 生産·技術面의 有機的인 連繫를 基礎로 金融面에서부터 販賣·流通面에 이르기까지 全体로서의 系列企業의 編成을 促進하였다.

이와같은 系列化에 의한 中小企業의 階層分化는 企業格差의 擴大를 招來하여 日本經濟의 二重構造 問題를 提起하기도 하였지만, 母企業이 下請企業과 以前보다 훨씬 一層 밀접히 結付되어졌다. 即 下請企業을 自己의 系列에 편입시켜 技術指導, 融資斡旋, 不要機械의 貸與等을 通하여 積極적으로 育成하기에 이르렀으며 이것은 단지 景氣變動의 調節을 目的으로 한 것이 라기보다는 母企業의 競爭力 強化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할 것이다.

이렇게 되자 下請企業에 대한 母企業의 利用方式은 다음과 같이 變하였다. 即 第一의 方法은 優秀한 下請工場에 設備·技術援助를 함과 同時에 경우에 따라서는 若干의 金融援助를 해줌으로써 高度의 下請工場으로 育成하여 專屬工場으로 하는 方法이고, 第二의 方法은 育成한 重要下請工場 주위에 從來까지의 下請工場을 再下請工場으로 묶어 놓는 方法인데 이것은 下請工場管理의 一部分을 中心이 되는 下請工場에 代行시켜 責任을 지도록 하는 方法이며, 第三의 方法은 統合工場方式이다. 例를 들면 우선 下請協同組合員에 發注를 集中해서 이 중에서 作業種類마다 2—3의 中心的인 下請工場을 選定해서 其他의 下請工場을 여기에 合同시키고 機械設備도 集中해서 從業員 100人程度의 下請工場을 만드는 方法이다. 이들 세가지 方法은 母工場의 專屬의 下請工場으로서 財務管理·工程管理도 母工場에 依해서 指導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第四의 方法은 專門「메이커」로 育成해서 母工場以外에도 販路를 擴大해서 技術的·經營의 高度化를 도모함으로써 母工場의 負擔을 減少시키려는 것이다.

事態가 이렇게 되자 中小企業構造의 高度化와 事業活動의 不利의 補完을 主內容으로 하는 中小企業基本法이 1963年 7월에 制定되었는데 그 18條에는 國家는 下請去來의 適正化를 도모하기 위하여 下請代金支拂遲延의 防止等 必要한 諸施策을 講究함과 同時に 下請關係를 近代化해서 下請關係에 있는 中小企業者가 自主的으로 그 事業을 運營해서 그 能力을 가장 有効하게 發揮할 수 있도록 必要한 施策을 講究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말하자면 中小企業의 立場을 強化시킴으로써 對等한 關係의 社會分業關係를 達成해 보자는 政策方向의 提示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65年의 不況으로 中小企業의 地位가 不利해지자 이를 解決하기 위하여 下請代金支拂遲延防止法이 改正과 下請企業振興協會의 設立을 보게 되었다.

한편 母企業은 下請企業을 包含한 「그루우프」全體로서의 競爭力을 強化하기 위하여 優良下請企業의 兩下請化·整理라는 下請再編成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産業構造審議會 管理部會 生産管理小委員會는 國際競爭에 對應하는 生産分業體制의 確立이라는 面에서 「外注管理近代化의 諸方案」을 發表하였는데 그 內容은 大略 다음과 같은 것이다. 從來의 外注管理는 下請制라 불리워지는 日本的인 制度로서 從屬的·閉鎖的인 母子關係 혹은 支配·被支配의 關係를 基盤으로 영위되어 賃金格差의 利用이라는 利點이 있었지만 勞動力이 不足하고 賃金水準이 上昇하고 있는 지금에 와서는 外注管理의 革新이 가장 시급한 課題로 되고 있다. 따라서 企業「그루우프」가 市場에서 優位를 確保하려면 앞으로는 높은 技術水準과 生産性을 가지고 近代的이며 가장 效果的인 生産分業體制를 確立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外注管理의 目的은 合理的인 生産分業體制를 確立함으로써 發注企業 및 外注企業 雙方이 長期的이며 安定的인 利潤을 確保하는 것이다. 이러한 目的에 따라 外注先企業은 獨立型專門「메이커」로 되거나 專屬型專門「메이커」로 移行되어야 한다.

이러한 外注管理가 이룩되려면 發注企業이나 外注先企業이나 다 같이 高度의 技術水準과 生産性을 가지고 兩者가 다같이 最適의 生産領域에서 分業體制가 確立되어야 하며, 이렇게 되도록 하는데 있어서 重要한 하나의 方法은 兩者가 公平한 利潤을 配分할 수 있도록 外注單價를 適正化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以上에서와 같이 下請制가 指向해야 할 方向을 提示하고 있으나 이러한 目標가 達成되려면 中小企業의 體質強化가 先決되지 않으면 안된다. 때문에 이 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1970년에 下請中小企業의 體質을 強化시키고 下請關係의 近代化를 위하여 下請中小企業振興法이 制定되었다.

이러하여 企業經營에 관한 下請制의 近代化는 經營管理(外注管理)라는 面에서 始作되어 業種別·生産領域別로 점차 各 階層別로 促進되어 지게 되었다.

企業集團을 中心으로 한 階層的인 企業經營構造를 보면 一般的으로 다음과 같은 企業經營의

特徴的傾向이 있다. 우선 關係會社(주로 子會社)에 대하여는, 長期經營計劃의 一環으로서 經濟的인 合理主義를 基調로 社會的分業에 依한 協業體制를 갖는 開放的立場으로부터, 母企業과 協力·調定해서 經營全體의 發展을 도모하면서 投資效率의 向上에 特別力點을 두어 關係會社管理를 強化하는 것이 要請되어지고 있다. 系列會社에 대하여는 經營管理能力, 資金調達能力, 研究·技術開發 能力이 重要視하게 되어져 從來와 같은 生産·技術의 系列化 段階를 벗어나 專門的인 責任生産體制를 가진 經營體制의 系列化·合理化인 이른바 系列管理가 要請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系列會社는 量産化에 의한 「코스트」引下를 도모하면서 元方復數化에 의하여 한층 開放的으로 되어지고 있으나, 母會社의 立場에서 본다면 資本的인 支配·管理(持株關係等)와 主要製品·機種을 中心으로 한 技術開發機能의 利用을 強化하는 「소프트·웨어」面에서 從屬化와 管理를 強化하는 方向이다. 專屬的下請에서는, 從來의 勞動集約的 生産分野에서의 加工受注에서 高加工度·生産部品 生産으로 또한 規格化·標準化한 量産化에로, 適正生産規模로 企業間的 協業化를 추진하여 中核的企業으로 만들기 위하여 經營指導, 情報提供, 技術指導等を 통한 外注管理(協力工場管理)가 행해지고 있다.

이와같이 日本의 下請制近代化는 企業集團을 中心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만족할 만한 狀態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말하자면 元方企業의 復數化→獨立專門「메이커」→正常的인 社會的인 分業關係로 나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大部分의 下請中小企業이 아직도 母企業과 對等한 立場에 있지 못하여 不利한 狀態에 있으며 이 不利한 程度는 밑에 階層에 있는 下請企業일 수록 큰 實情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全國 一律的인 最低賃金制, 下請中小企業에 대한 보다 積極的인 育成策等 下請中小企業을 뒷받침 할 수 있는 法的·制度的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반조치는 그 國家의 與件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積極的인 努力을 傾注한다면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도 좋을 것이다. 그것은 歐美先進諸國이 오늘날 社會的인 分業關係를 維持하고 있다¹³⁾는데 서는 理解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VI

以上에서 보아온바와 같이 下請制는 元來 商業資本의 支配에서 始作하여 産業資本이 支配하는 形態로 移行되어져 왔다. 뿐 아니라 産業資本의 支配形態도 經濟環境이 變함에 따라 그 樣相을 달리하여 왔다. 이러한 過程에서 下請에 關한 여러가지 問題가 發生하였으며 이에 관

13) 清成忠男: 變動期の中小企業經營, 日本勞動協會, 1976, pp.161-206.

한 많은 論議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를 잘 考察해 보면 大企業과 下請中小企業間의 不對等한 關係가 下請問題의 根源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下請制의 問題點을 解決하기 爲해서는 下請中小企業을 大企業과 對等한 關係로 끌어 올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短時日內에 이루어질 수 없을 뿐더러 大企業과 下請中小企業을 社會的인 分業關係로 이끄는 對策 또한 一律的일 수 없다. 말하자면 그 國民經濟가 處하고 있는 經濟與件을 考慮하여 樹立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下請 및 系列化問題가 重要視 되어지고 있는 理由는 重化學工業의 發展과 이의 國際競爭力強化가 急先務로 되고 있는데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下請中小企業이 發展하지 못한 데 있다 할 것이다. 重工業 特히 機械 電子等 組立工業은 部品을 만드는 中小企業의 育成없이는 國際市場에서의 競爭을 이겨내면서 發展하기란 거의 不可能한 일이다. 그러기 때문에 重化學工業의 發展을 위해서 下請中小企業育成發展이 重要한 課題로 登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下請中小企業을 大企業과 對等한 社會的인 分業關係로 發展시키는 것은 一朝一夕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러므로 長期的인 眼目에서 漸進的인 段階를 밟아 問題를 解決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經濟는 50年代末 내지 60年代初의 日本經濟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의 걸었던 길을 참고한다면 下請中小企業自立化의 前段階인 系列化를 積極 推進해야 하리라 본다. 이를 推進하여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려면 下請中小企業, 大企業 및 政府가 三位一體가 되어 努力하지 않으면 안된다. 下請中小企業은 自身の 自立化를 위하여 倍前의 努力을 傾注해야 할 것이고, 大企業은 下請中小企業 發展이 곧 自己의 發展이라는 것을 自覺하여 中小企業이 成長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政府는 大企業의 僥倖을 견제함은 勿論 下請中小企業이 自立할 수 있도록 金融, 稅制, 技術向上, 經營者의 資質 向上을 위한 적절한 對策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 Summary —

A Study on Subcontract System

Kim Moon-kwa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our country in future depends on the development of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y, and it is very hard for the development of heavy and chemical industry to be attained without developing the middle and small enterprises. Therefore it is the target of this essay to research the problems and propose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subcontract system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heavy and chemical industry.

In the age of monopoly capitalism the middle and small enterprises exist in two types. One is independent of the big enterprise, the other is dependent on the big enterprise. There are subcontract system and integration of enterprise in dependent type. The big enterprises take advantage of the subcontract system and the integration of enterprise, because it is profitable for them. So to speak, the middle and small enterprises are unfavourable as compared with the big enterprise. The middle and small enterprises have tried to match the big enterprise, but it is not get attained.

There are two views of the subcontract system. One is the view that the subcontract system makes the moment of the equal relations in the division of labor between the middle and small enterprise and the big enterprise, the other is the view that the big enterprise exploits the subcontracting middle and small enterprises. But which is right, can not be said in a word. It is probably right to be determined by the situation of the economic development in a society.

The degree which the subcontracting middle and small enterprises depend on the big enterprise is generally low in Europe and America, and difference in wages between them is also small. But it does not so in Japan. In Japan the subcontract system was widely adopted in the mechanical industries in the 1930s. In this time, the relations between the subcontracting middle and small enterprises and the big enterprise seemed to be equal, for the government took various measures to support the subcontracting middle and small enterprises. But after World War II existence of the many unemployed made the subcontracting middle and small enterprises. To overcome this, the

government and the subcontracting middle and small enterprises since the 1960s have taken various measures. But the result is not yet satisfactory.

The subcontract system or the integration of enterprise is very needed in our country in order to develop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y of our country. But there are problems arising from unequal relations between the subcontracting middle and small enterprises and the big enterprise.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 and the subcontracting middle and small enterprises have to take various measures.